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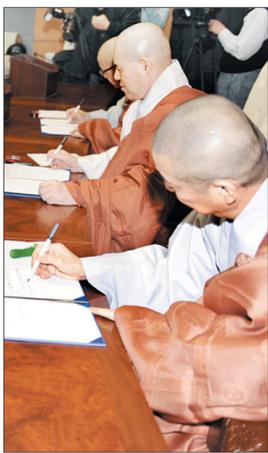
3원장·종단 집행부 ‘무소유 유언장’ 작성

종정예하 원로 이어 ‘사후 재산 종단출연’ 솔선

종정예하, 원로의원에 이어 총무원장·교육원장·포교원장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들이 일제히 유언장을 작성했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35명은 지난 4월27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을 종단 내(內)에 출연하겠다’는 내용의 친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교육원장 현응스님은 조계종 유지재단에 출연한다고 서약했다.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부천 석왕사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조계종 유지재단에, 사회부장 혜경스님은 대구 장원사에, 문화부장 효탄스님은 서울 대자사에, 사서실장 경우스님은 조계종 유지재단에 ‘입적 후 개인명의 재산’을 출연키로 했다.

총무국장 종민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유언장 작성식에 참석한 스님들은 2007년 개정된 승려법에 근거해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공포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종단 3원장 스님들의 친필 유언장 작성 모습.

의법인 등에 출연하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난 후 총무부장 영담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들이 작성한 서류를 취합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달했다.

출가본사인 제14교구 범어사를 출연처로 유언장을 작성한 기획실 감사국장 법귀스님은 “(출가할 때) 당연히 가져온 게 없으니, (재산이 있다면) 종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지당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감사국장 법귀스님은 “종정예하께서 몸도 내 것이 아닌데, 재산이야 마땅히 종단으로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면서 “출가수행자는 당연히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상당수의 교역직 스님들은 분한신고기간에 맞춰 유언장 등 서류를 작성해 교구본사에 접수한 상태이다. ▶관련기사 12면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에 따라 친필 유언장을 쓴 것이다. 규정에 의해 조계종 유지재단과 본·말사 및 불교공

“수행공동체 완성하는 지름길”

원로의장 ‘사후 재산출연’ 당부 담화문 제35차 회의...월탄스님 원로의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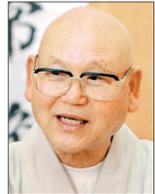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가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에 관한 령’을 적극 지지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로회의는 지난 4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3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적 후 승려 개인명의 재산의 종단 출연을 적극 지지하는 담화문을 내기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3면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은 결의 이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수행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처님의 참 제자

로서, 종도로서 수행 동참해 줄 것을 주문하는 바”라며 “그것이야말로 종단을 수행공동체로 완성하는 지름길이며 수행자의 근본 율장인 ‘무소유’를 실천하는 지혜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로회의에선 신임 원로의원에 월탄스님(청주 용화사 회주)을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에 대한 대중사 범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통과시켰다.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월탄스님은 1937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나 1955년



월탄스님

화엄사에서 금오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1960년 정화불사 당시 대법원의 부당판결에 항의하며 할복을 결행한 6비구 가운데 한명이다. 또한 중버생 1기로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5·6·8·9·10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제8대 중앙종회 의장을 지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덕송스님을 사무처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이성수·장영섭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집행부는 지난 4월27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 체육관에 마련된 천안함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 장병의 극락왕생을 기원한 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영웅들 원하는 세상 태어나시길”

종단 집행부 천안함 희생자 빈소 방문 ‘극락왕생’ 기원

성금 5000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천안함 희생자 46명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평택 제2함대 사령부를 찾아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포교원장 혜충스님, 군종특별교구장 자광스님, 총무부장 영담스님, 기획실장 원담스님 등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30여명은 지난 4월27일 제2함대 사령부 분향소를 방문하고 영단에 헌화와 헌향을 한 후 희생 장병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분향소 오른쪽에 마련된 희생자 가족대표들의 손을 일일이 잡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위로했다. 이에 고 서대호 중사의 어머니 안민자씨는 “고맙습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총무원장

스님은 빈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2함대사령부의 군인가족 10여명을 격려하기도 했다.

조문 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천안함 희생자 위로금 5000만원을 해군사참모부장 정호섭 소장에게 전달했다. 총무원은 5월13일에는 종단 또는 본사주최회의 차원에서 천안함 희생자들의 49재를 봉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군종특별교구와 협의하고 있으며,

유가족의 뜻을 존중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유족들에게 “3월26일 침몰소식을 접하고 놀라움과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으로 구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면서 “유가족들의 찢어질듯 한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라고 위로했다. 이어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깊이 새기겠다”면서 “영웅들이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오니,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평택=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서울광장 점등식 연기
5월3일 오후7시 거행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봉축점등식이 천안함 희생자 분향소 설치관계로 연기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장례식이 거행된 이후인 5월3일 오후7시에 봉축점등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정일은 4월27일이었

다. 이성수 기자

조계종출판사 ‘주식회사’ 전환

도서출판 조계종 출판사가 주식회사로 전환된다. 총무원은 지난 13일 제20차 총무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령을 전면 개정하여 공포했다. 명칭은 ‘(주)조계종 출판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이다. 이 령의 목적은 “종단의 수익과 문서포교의 진작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서 출자하는 (주)조계종출판사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다. 주식회사

전환에 따라 출판사의 사업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적 및 달력 출판과 서적의 도매·소매는 물론 스승의 날 기념품 등 출판 및 판매 △전자상 거래업 △기타 부대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포교원장 스님이 출판사의 당면직 대표를 맡았지만, 주식회사 전환에 따라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총무원장이 승

인하도록 변경됐다. 임원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업무관장은 그동안 포교원 포교부에서 해오던 것을 총무원 재무부가 담당하게 된다. 출판사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종단목적사업 △교육, 포교용 도서 발간 및 무료 제작 배포 △기타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조계종 출판사는 종단 개혁발사 이후인 지난 1995년 문서포교를 위해 설립됐다. 조계종 출판사는 그동안 약 150여종의 출판물을 펴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문화재관람료 징수업무 통합전자발권으로 쉽게

www.imoin.co.kr



입장료 통합 전자발권시스템 ‘도입’

문화재사찰 주차권 동시발행 가능...조계종·(주)아이모인 협약

‘문화재보유사찰 문화재구역임장료 통합전자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총무원 재무부장 상운스님과 주식회사 아이모인 송현 대표가 참석해 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은 총무원 재무부장 상운스님, 오른쪽은 송현(주)아이모인 대표.



조계종 총무원과 (주)아이모인은 3월 25일 ‘문화재보유사찰 문화재구역 입장료 통합전자발권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은 총무원 재무부장 상운스님, 오른쪽은 송현(주)아이모인 대표.

총무원 재무부장 상운스님은 “종단에서는 사찰을 찾는 입장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보유사찰의 전체 의견과 위원회 회의를 거쳐 문화재구역입장료 통합전자발권시스템을 희망하는 사찰부터 이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부장 스님은 “사찰을 찾는 관람객 및 탐방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주)아이모인 대표는 “종단에서 기회를 줬다”면서 “조계종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따라 문화재보유사찰은 대표업무의 완전 전산화로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통계 및 분석 자료를 제공해 문화재구역입장료 징수제도가 전일보할 것이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고, 입장권 및 주차권을 동시에 발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 및 단체 입장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1-2번지 고양브로맥스타워 805호 Tel 031)925-2913